

‘여름 산사 추억’



윤 후 명 작가, 국민대문창대학원 겸임교수

명사들은 여름 산사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었을까? 본지가 여름 특집으로 마련한 ‘여름 산사 추억’은 명사들의 추억이 담긴 산사의 에피소드들을 담은 코너다. 그분들의 추억담을 통해 여름 산사의 정취 속으로 들어가보자.

그리움을 가르쳐준 산사



그림 윤후명 '상사화가 피어있던 오십년 전의 그 암자'

그 암자가 내게 던진 화두는 그리움이였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가파른 비탈길 위의 한 암자를 생각한다.

려는 것은 아니다. 그 시절의 병이아말로 내 삶을 늘 아프게 하여 눈뜨고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아픔은 존재를 인식케 하는 힘이었다. 그 여름, 나는 몇 권의 시집들을 싸들고 산사로 향했다. 마곡사에 딸린 그 암자를 알려준 것은 그 무렵 편지를 나누던 여고생 K였다. 충남 공주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더 가야 하는 시골길.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차편은 도중에서 끊겨 있었다. 하는 수 없었다. 포기한다면 일생일대의 실패로 기록될 것만 같았다. 나는 먼 길을 걸어서 겨우 절에 도착했고, 암자까지의 가파른 산길을 기신 기신 올라갔다. 그곳에 숨겨진 시를 얻으러 가는 심정이기도 했지만, K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러나 그곳에 시가 숨겨져 있을 리는 없었다. 시란 내 마음에 있는 것, 몇 날이 지나도록 나는 시를 꺼낼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앞치락 뒤치락하고 난 다음날이면 나는 허공에 떠 있는 듯이 산길 이리저리 쏘다니거나 개울물가에 앉아 있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만 있었다. 무엇인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심오한 화두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책 한 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산란할 뿐이었다. “학생, 무슨 공부를 하러나?” 누군가 물었다. “아, 예, 문학을...” 어렵사리 대답은 했으나 그것도 숲속에서

함께 와서 아래에서 자고 간 다음날, 나는 암자를 떠났다. 그때 뜰에 피어 있는 꽃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튿날 사연도 모르던 그 꽃에 대해 내가 가져갈 뜻을 비추자 공양주는 아무 말 없이 선뜻 캐주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한 거리낌없는 몸짓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하다. 그래서 그 몸짓이 내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나는 암자의 그 날들을 잊지 않는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 때, 내 옆에 남몰래 피어나던 한 송이 꽃이 있었다. 결코 서로 마주보지 못하더라도 잎이 피고 꽃이 핀다. 그 암자가 내게 던진 화두는 그리움이였다. 삶이란 그리움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그리하여 그리움이 내 문학의 힘이라고 가르쳐주었던 것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가파른 비탈길 위의 한 암자를 생각한다. 인생의 마무리길에서 마지막 그리움의 꽃을 피우야 한다. 마지막까지 단 한 줄이라도 간절한 그리움의 삶을 기록해야 한다. 이 여름, 나는 산사의 꽃이 내게 준 그리움의 의미를 되새긴다.

시간의 그림자를 뚫고 ‘참나’ 를 찾다

가오성젠의 ‘생사계’ 무대에 올라 7월 18~29일 대학로 선돌극장서

고 무대에는 어두운 벽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벽을 통해 여인은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을 시작한다. 여인은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았던 어머니, 자신의 육체를 깨달았던 기억, 자신을 노리개로만 취급했던 다른 여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타인과의 관계계가 단절되었음을 알아차리고 두려워하는 순간 무대에는 비구니 스님이 나타나 여인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정반에 올려놓는다. 스님이 내장을 씻어내자 여인은 자신을 저버린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음을 자각한다. 그리고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듯한 환상을 맞는다. 이제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가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여성화자는 시종일관 자신을 ‘그녀’로 지칭한다. 이 대명사의 활용을 통해 자아로부터의 분리와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자아는 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감각되는 객체로서 현존한다. 인간의 기억은 힘이 세다. 행복했던 기억은 행복했던 대로 아팠던 기억은 아팠던 대로 우리의 현실을 파고 든다. 하지만 기억과 환상에 함몰된 삶은 자칫 불행한 현실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롯이 나를 객관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찾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가오성젠의 작품 ‘생사계-살과 죽을 사이’가 7월 18~29일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인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주인공의 내면탐구 과정을 담았다.

화선지 위 ‘佛心’ 담아내

오경호 작가 전시...20일까지

오경호의 ‘아발로키테슈아라(관세음보살)’전이 7월 20일까지 광주역 2층 코데일 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 4년간 혼신을 다해 작가가 작업한 수묵담채화 45점 서예작품 25점 등이 대중들을 찾아간다. 이후 그는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약초 수집을 위해 강원도 양구지역을 돌다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바로 한국화단의 거목 윤보 김기창 화백을 만나 5년 동안 한국화를 배우게 된다. 이후 그는 강렬하면서도 간결한 색채로 연꽃과 동백을 비롯 부처님과 가섭, 사리불 등 불



오경호 작가의 서예작품

교적 색채가 담긴 그림을 담아내기 시작한다. 늘 지역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던 그는 이번 작품 판매수익금 역시 전액을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보시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천태종 불교사진공모전...작품 마감 10월 5일

상월원각대중사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고 한국 대표 우수전통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천태종 제 2회 불교사진공모전이 열린다. 불교관련 소재의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규격은 >슬라이드 필름 컬러 및 흑백사진 11"×14" >디지털카메라 촬영시 최소 3024×2016 픽셀이다. 1인당 3점 이내까지 출품 가능하며

작품 뒷면 또는 이메일에 화제 성명 우편주소 전화번호를 기입 출품표를 부착해야 한다. 작품은 (110-776)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허브 오피스텔 102동 307호로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10월 5일까지다. 수상작은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열린다.

Advertisement for '성지순례' (Holy Land Pilgrimage) by Ma-ha-yeon-tour. It lists various pilgrimage packages to destinations like Myanmar, Sri Lanka, Laos, and Thailand,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Contact information: (02)365-7747.

Advertisement for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다' (I am sick because I am alive) by Seongbeom Sim. It features a book cover image and text discussing the value of life and the importance of health. Contact information: (042)543-3722.